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과제

(2019.10.2)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hslee@kc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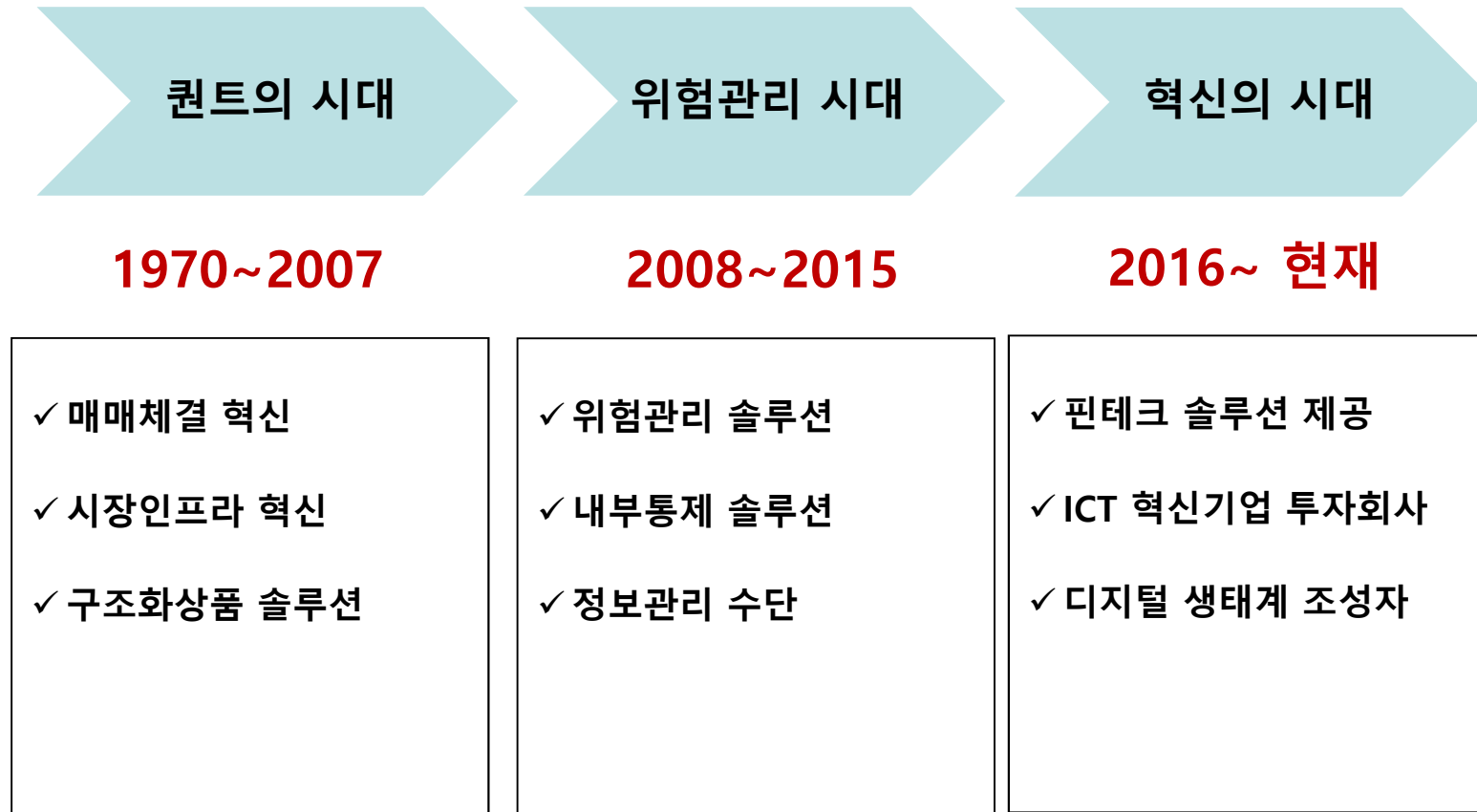
목 차

1 글로벌 IB의 디지털 혁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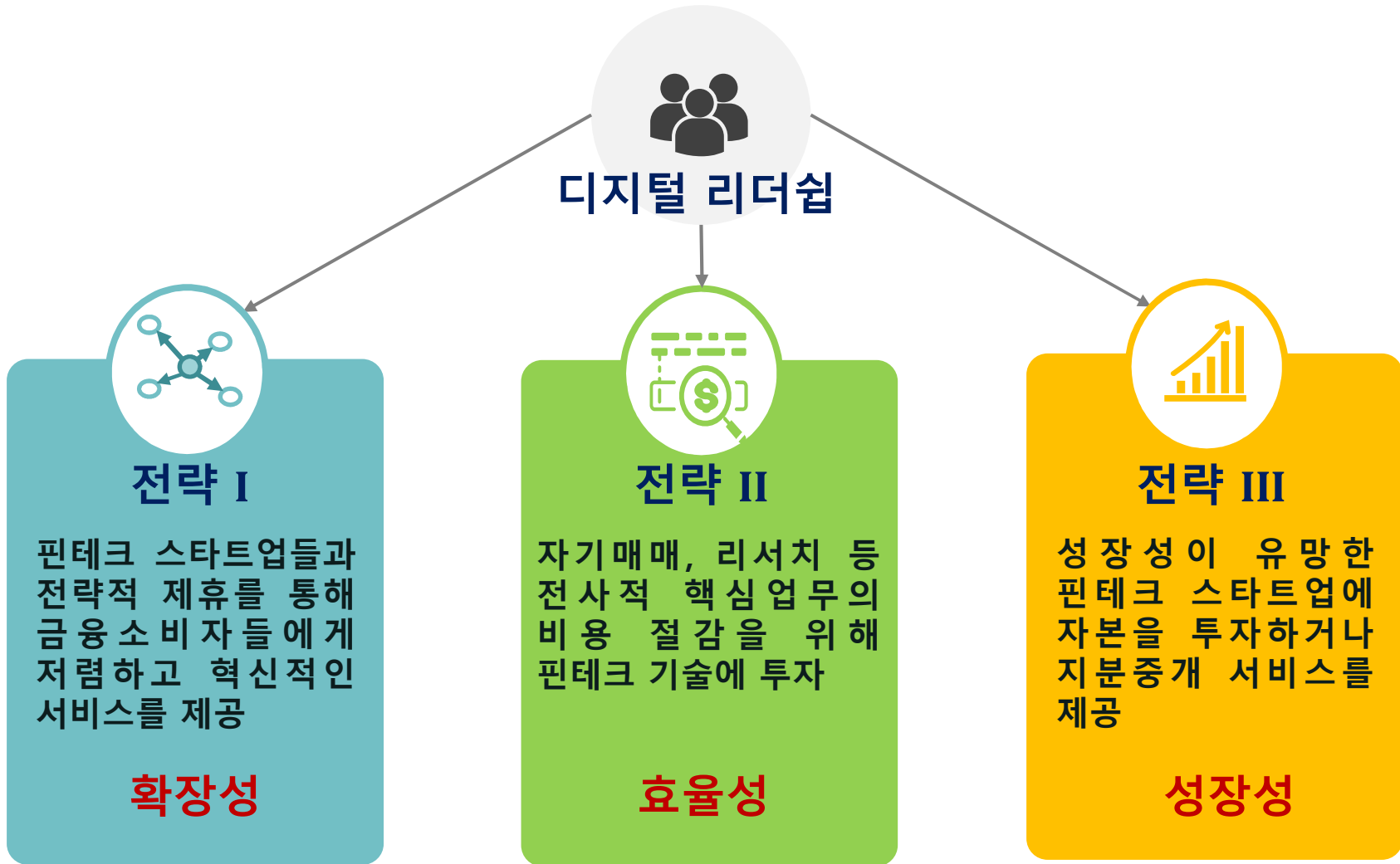
2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화 진단

3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향

글로벌 IB의 ICT 투자 역사



글로벌 IB의 디지털 혁신 전략



글로벌 IB의 디지털 리더십



Digital
Vision

금융회사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비전을 전환



Agile
Culture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Trust &
Support

디지털 사업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성공에 대한 믿음



Company-wide
Fintegration

ICT 융합을 통한 전 사업부분의 디지털 통합을 추진



Willing to
Learn

ICT 신기술 및 해외 혁신사례를 꾸준히 학습하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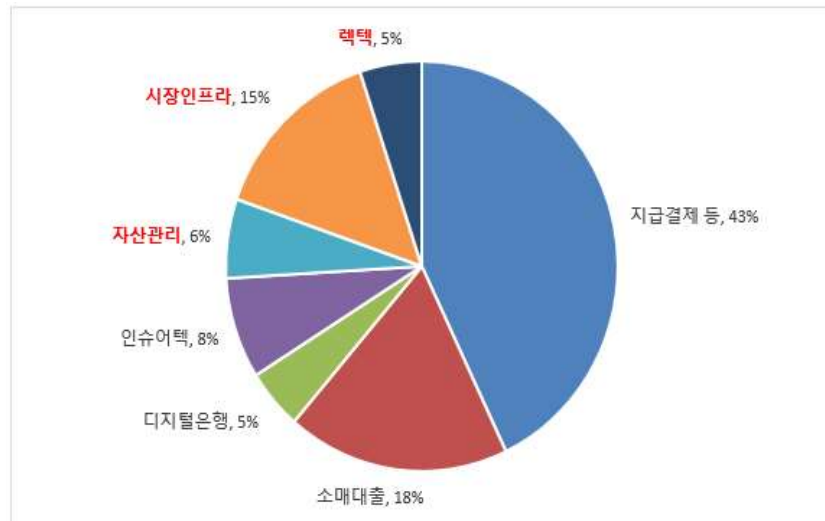
글로벌 IB의 사업부분별 디지털 전략



자본시장 분야 핀테크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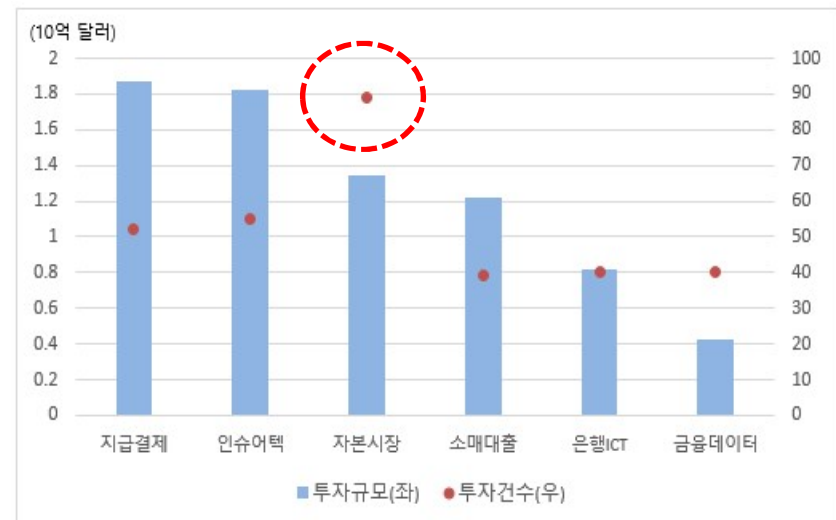
- ❖ **핀테크 투자비중 중 자본시장 분야는 약 20~25%로 지급결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시장인프라, 자산관리, 렉텍의 투자비중은 각각 15%, 6%, 5%로 자본시장 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20~25%를 차지하고 있음
 - 글로벌 VC와 더불어 글로벌 IB들이 자본시장 부분에 상당규모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짐
- ❖ **최근 미국에서는 자본시장 부분의 핀테크 투자건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비대면 자산관리 수요와 더불어, 거·래위험관리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
 - 자본시장 부분의 핀테크 투자건수는 총 90건으로 인슈어텍(55건), 지급결제(50건)보다 높음('18)

글로벌 핀테크 투자 비중(2018년)



자료: CB Insights

미국 핀테크 투자금액 및 건수(2018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IPO 변화 및 글로벌 IB의 디지털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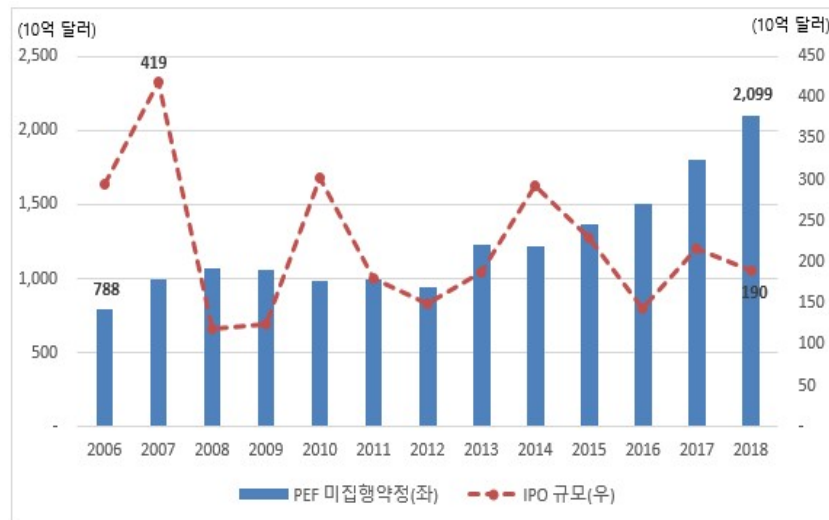
❖ IPO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사모펀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

- 사모시장의 자금조달이 활발해짐에 따라, Tech 기업을 중심으로 IPO를 꺼리는 현상이 증가
 - 2018년 PEF 미집행약정은 2.1조 달러로 빠르게 성장한 반면, IPO 금액은 1,900억 달러로 둔화
- IB를 배제한 직상장이 가능해졌으며(예: Spotify, Slack), 거래소간 IPO 경쟁도 활발

❖ IPO 시장 대응을 위해 스타트업 제휴, IPO 프로세스 혁신 등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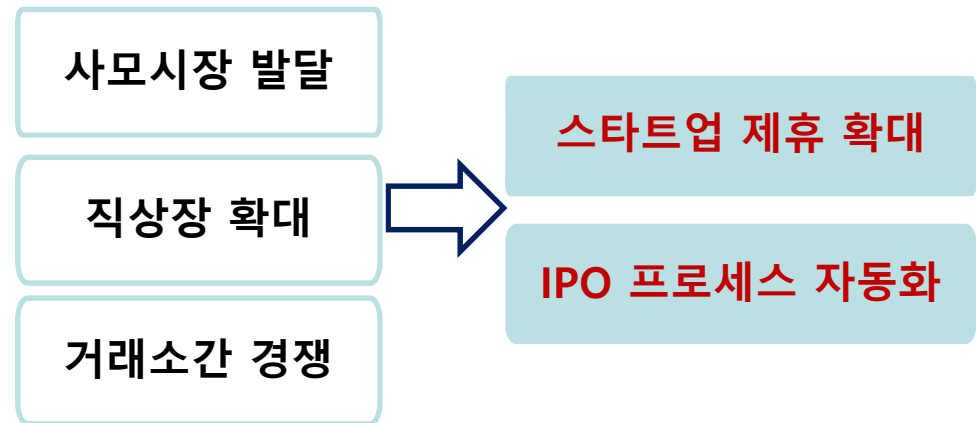
- 미래 IPO 대상인 스타트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IPO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
 - 골드만삭스는 IPO 기업 발굴, Compliance·법규 지원, 감사 업무 등을 자동화한 솔루션 도입
 - 모건스탠리는 Tech 기업 IPO를 위해 Solium Capital(ESOP 관리 솔루션)을 인수

글로벌 PEF 미집행약정 및 IPO 규모 추이



자료: Bloomberg, Preqin

글로벌 IB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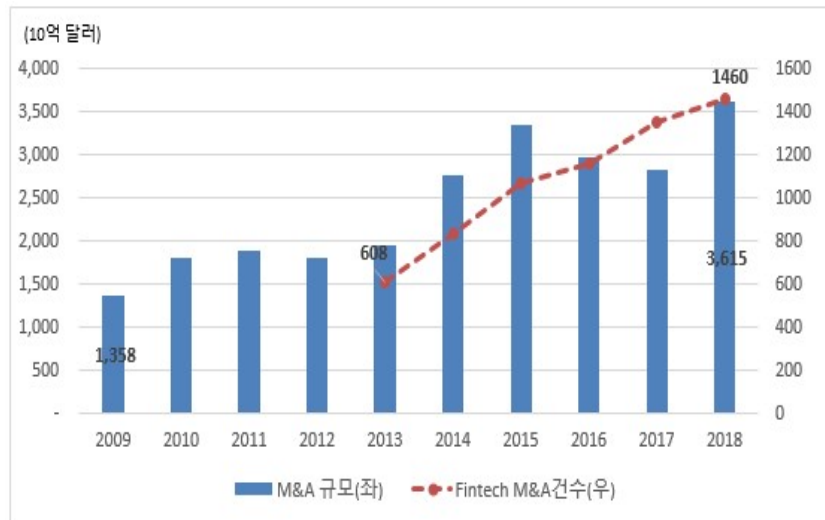
<과거>

<현재>

M&A 변화 및 글로벌 IB의 디지털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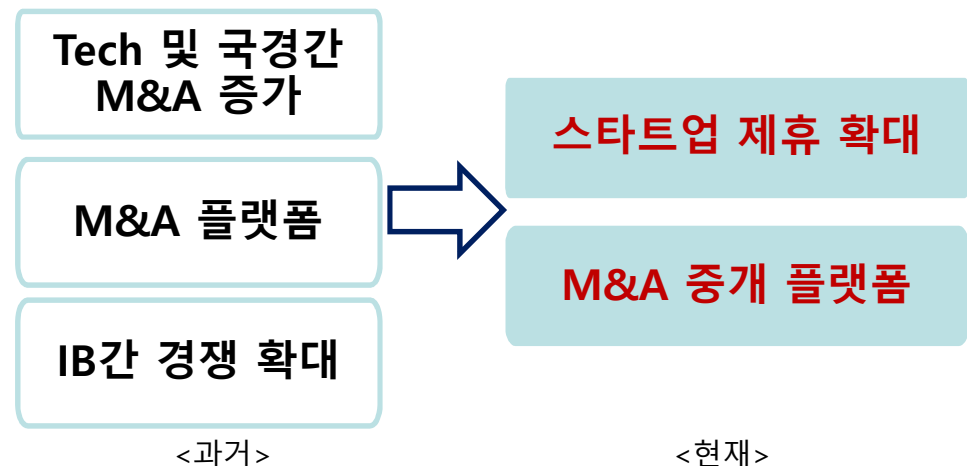
- ❖ **Tech 기업 M&A, 국경간 M&A 증가 영향으로 글로벌 M&A 시장은 꾸준히 성장**
 - 2018년 핀테크 기업 M&A 건수는 1,460건으로 2013년 대비 약 2.5배 증가
 - ICT 기반 M&A 전문 중개 플랫폼(예: Axial)의 등장 및 IB들간 경쟁 확대로 M&A 관련 보수는 감소
- ❖ **대형 IB들은 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를 늘리고 있으며, M&A에 특화된 IB들이 증가**
 - 글로벌 IB들은 초기 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M&A 자문 및 M&A Financing 업무를 수행
 - M&A 중개 플랫폼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M&A 전문 부티크 IB들이 등장
 - 예: Qatalyst, Centerview

글로벌 M&A 규모 및 핀테크 M&A 건수 추이



자료: Bloomberg, CB Insights

글로벌 IB의 대응전략



<참고> 글로벌 IB의 핀테크 기업 금융지원 - 핀테크 혁신지원 랩

씨티그룹

Citi Innovation Lab('11)

- ✓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회사 Citi 벤처스가 자금 지원

JP모건

Financial Solution Lab('15)

- ✓ 공개 모집을 통해 성장성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자금지원, M&A 등을 제공

모건스탠리

Multicultural Innovation Lab('17)

- ✓ 다문화 CEO 또는 여성 CEO 스타트업들에게 사무실, 자금,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

골드만삭스

Internal Brain Trust('17)

- ✓ 내부 혁신랩 설립을 통해 기존 M&A 전략과 차별화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PI 부서와 공유

BBVA

Innovation Labs('07)

- ✓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발된 기업에게 사무실 및 자금,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UBS

W.M Innovation Lab('14)

- ✓ 고객 자산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핀테크회사를 선발하고 해당 핀테크회사에 자금을 지원

바클레이스

Barclays Accelerator('14)

- ✓ Demo Day를 통해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은행 고객인 ICT 기업들과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

도이치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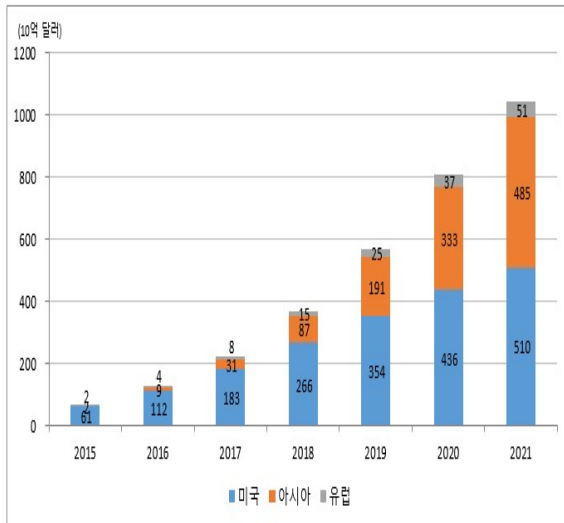
Deutsche Bank Labs('16)

- ✓ 도이치뱅크 고객들에게 핀테크 기업의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디지털 전략에 반영

자산관리 변화 및 글로벌 IB의 디지털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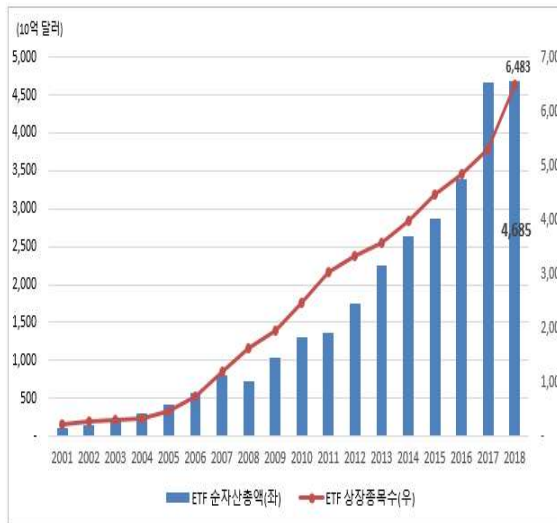
- ❖ 저금·리고령화로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비대면 채널 및 저보수 상품 수요 증가
 - 디지털 혁신으로 로보어드바이저(RA)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자산관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
 -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자산관리 보수가 낮아지고, 편의성이 증가
- ❖ 글로벌 IB들은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분야에 역량을 집중
 - 고액 자산가들에게 저보수의 생애주기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예: ETF Managed Portfolio)
 - 일반 고객들에게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저보수의 편리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
 - 예) 골드만삭스 Marcus, BOA의 Merrill Edge, 찰스스왑 Intelligent Portfolio 등 다수

글로벌 RA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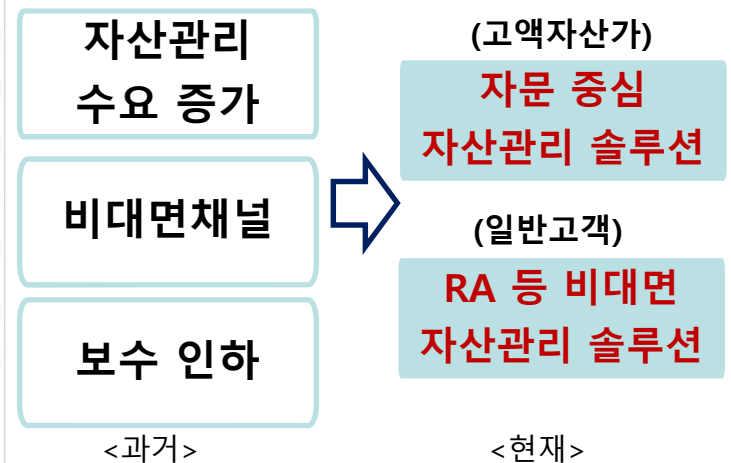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글로벌 ETF 순자산총액 추이



자료: ET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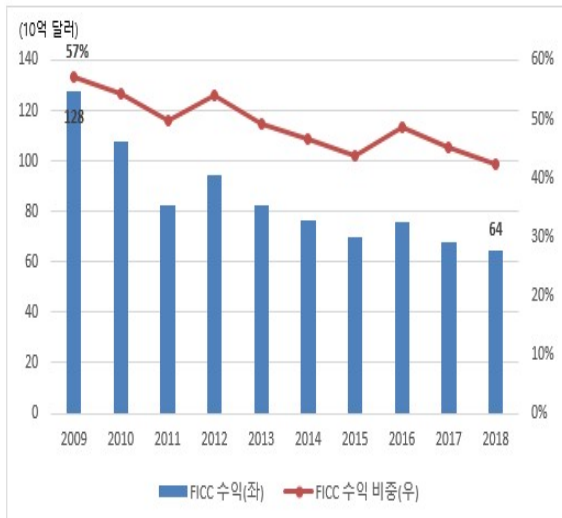
글로벌 IB의 대응전략



자기매매 변화 및 글로벌 IB의 디지털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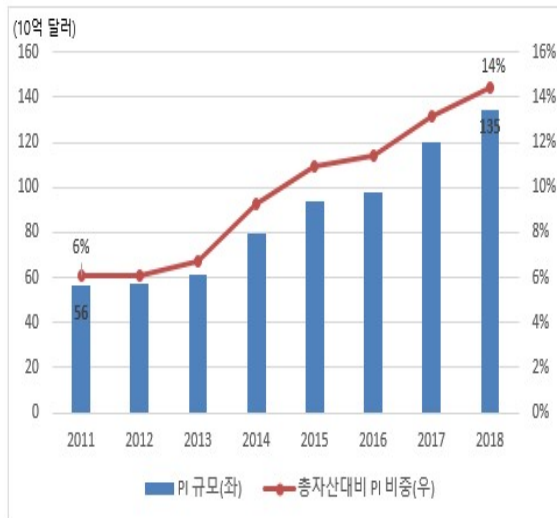
- ❖ 자기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변동성 감소로 FICC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이 감소
 - 볼커룰,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영향으로 FICC 사업 수익이 감소
 - 자본시장 변동성이 감소하고 ICT 기술 발달로 정보비대칭이 해소됨에 따라 자기매매 수익이 감소
- ❖ 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 자기자본 투자를 늘리며, 중개 플랫폼 혁신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 글로벌 IB들은 성장성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자기자본 투자를 확대
 - 예) 골드만삭스의 PI 자산 비중은 전체 자산의 6%('11)에서 14%('18)까지 증가
 - 기관 고객에게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데이터 기반의 중개플랫폼을 제공
 - 예) 골드만삭스의 Marquee, JP모건의 Execute, 모건스탠리의 Matrix 등

글로벌 IB의 FICC 영업수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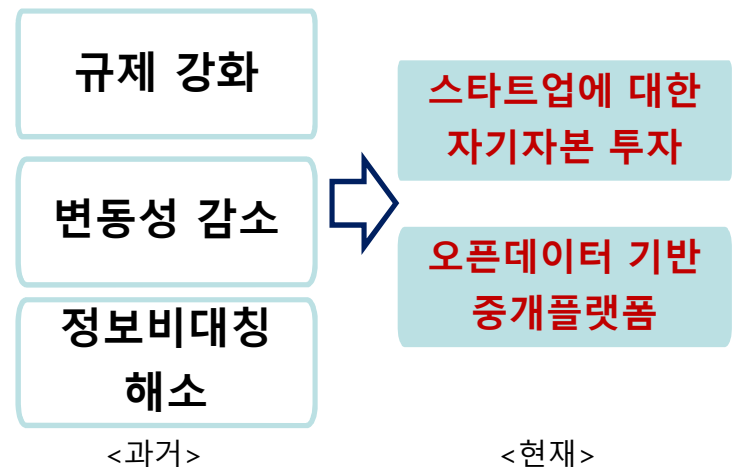
자료: Coalition, S&P 글로벌

골드만삭스 PI 자산규모 추이



자료: 골드만삭스, Investing & Lending 사업 참고

글로벌 IB의 대응전략



글로벌 IB의 핀테크 자기자본 투자 전략 – VC, PEF 역할 수행

- ❖ **PI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성장성이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게 대규모 자기자본 투자를 수행**
 - 글로벌 IB들은 자기자본투자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핀테크 기업들에게 대규모 자기자본을 투자
 - 골드만삭스의 PSI(Principal Strategic Investment), JP모건의 SI(Strategic Investment), 모건스탠리의 투자관리부서(Investment Management), 산탄데르의 Innoventures, CS의 Entrepreneur Capital 등

- ❖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여 대규모 수익을 실현**
 - 보유 지분가치가 빠르게 늘거나, 핀테크 투자포트폴리오가 중복되는 경우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
 - 골드만삭스의 켄쇼 지분 매각(5.5억달러, S&P, '18), 골드만삭스의 DataFox 매각(오라클, '18) 등

글로벌 IB의 핀테크 자기자본 투자 전략

주요 IB	핀테크 투자 부서	특징
골드만삭스	PSI 그룹	핀테크, AI·빅데이터, ICT 보안 기업 등에 장기간 투자(7년간 연평균 25% ROE)
JP모건	전략적 투자부서	PEF 사업부를 개편하여 핀테크에 투자
모건스탠리	투자관리부서	핀테크사 주식, 채권에 장기간 투자하며 IPO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강화
산탄데르	벤처투자 자회사 (Innoventures)	초기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VC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
크레딧스위스	벤처투자 자회사 (CS Entrepreneur Capital) LTD	VC 펀드 운영을 통해 핀테크, Tech 중소 기업 등에 지분투자를 수행

자료: 각사 홈페이지

<참고> 글로벌 IB의 핀테크 투자 사례 – 자기자본투자 및 전략적 제휴

- ❖ 글로벌 IB들은 자산관리, 매매체결·위험관리, 데이터분석, 소매대출, 렉텍 등에 투자
 -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산탄데르, UBS 등이 자본시장 부분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투자

글로벌 IB의 자본시장 부분 핀테크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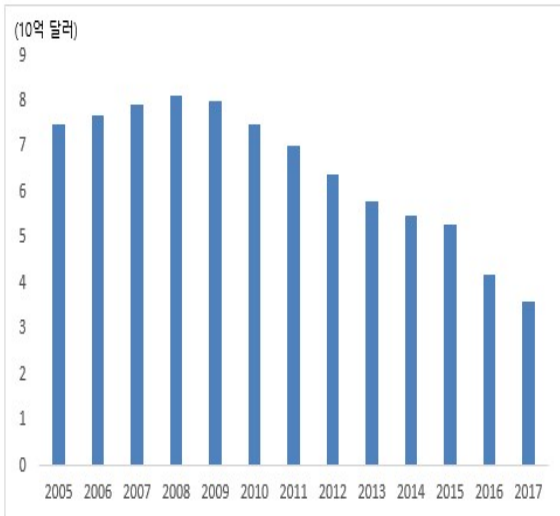
	자산관리	매매체결, 위험관리	데이터 분석	렉텍	소매대출	기업 솔루션
골드만삭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TIF • FOLIO • HONEST_\$ • VESTW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MPHONY • TRADESHIFT • PLAID • CURVEGLOB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MINR • PLAID • VISIBLEALPHA • DATAF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DIA • DROIT • DIGITAL REASO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QUETA • NAV • NEYBER • PERSA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TA • DIVVY • NYSHEX
JP모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TI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MPHONY • OPENFIN • CURVEGLOBAL • INVESTCLOU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ID • MOSSA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DIA • CLOUD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SPER 	
모건스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MPHONY • ERIS • ELINI • I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MINR • VISIBLE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U.COM 	
산탄데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OSTIFY • SIGFI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SHIFT • PERSONETICS • DIGITALASSET HOLD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BLE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BBAGE • AUTOFI • EPOSOS • CREDI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KETINVOICE
U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GFI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MPHONY • I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BLE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A RAPID FINANCE 	

중·후선 부서 변화 및 글로벌 IB의 디지털 대응 전략

- ❖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Middle, Back 부서에 대한 인력 투자를 줄임
 - IB, FICC 등 주요 부서의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Middle, Back 부서를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
 - 예) 글로벌 IB의 리서치투자 규모는 약 36억 달러로, 2008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
 - 바젤3, MiFID II, PRIIPS 등 규제 변화로 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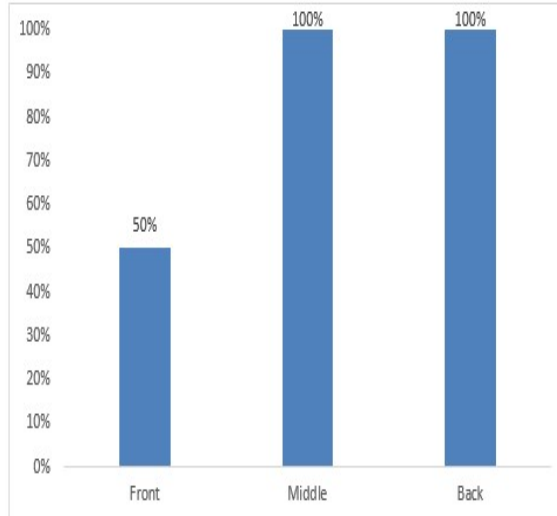
- ❖ 비용 절감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Middle, Back에 대한 핀테크 투자를 확대
 - 비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분석, 위험관리 부문 등 업무 자동화를 추진
 - 바젤 3, MiFID II 등 규제 대응을 위해 청산결제, 담보·증거금 관리 등 렉텍에 대한 투자를 확대

글로벌 IB 리서치투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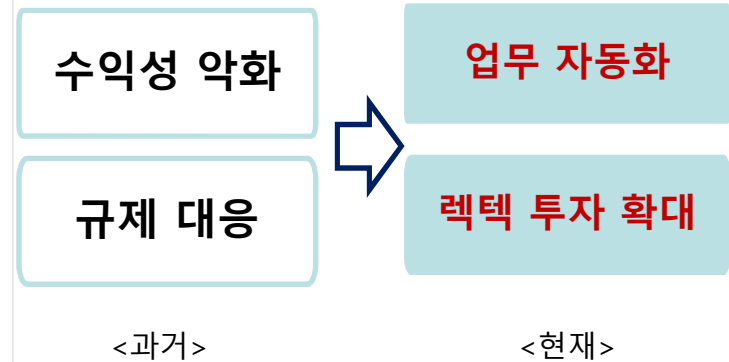
자료: Financial Times, Frost Consulting

글로벌 IB의 부분별 핀테크 투자 계획



자료: Accenture, 글로벌 IB 10개 회사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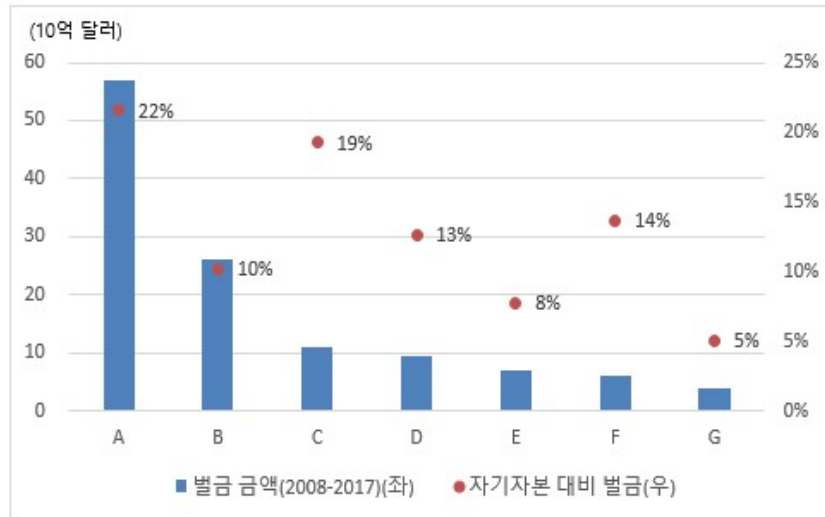
글로벌 IB의 대응전략



규제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략 – 렉텍(Reg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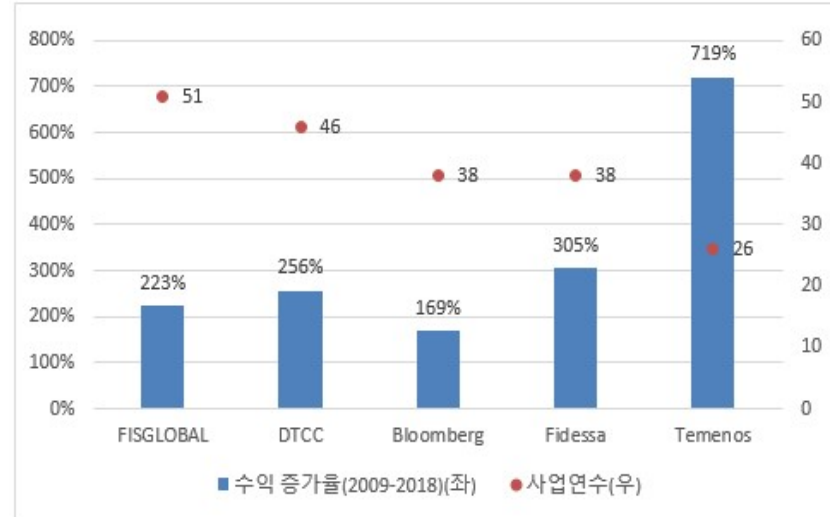
- ❖ **글로벌 IB는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행위로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벌금을 부과 받음**
 - 글로벌 IB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0억 달러(자기자본 대비 13%)의 벌금을 부과 받음
 - 이에, 청산결제, 담보·증거금 관리, 거래정보 보고, 내부통제 등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 **글로벌 IB 및 시장인프라 회사는 규제 대응을 위해 ICT 금융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
 - Legacy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자본시장 플랫폼 회사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
 - FISGLOBAL: 223%, DTCC, 256%, Bloomberg 169%, Fidessa 305%, Temenos: 719%
 - 거래소, 중앙예탁기관은 M&A를 통해 ICT 기반 자본시장 솔루션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 CME: NEX(ICAP) 인수('18), LSE: Refinitive 인수('19), HKEx: Ronghui Tongjin 인수('19) 등

주요 글로벌 IB의 누적벌금 규모



자료: Financial Times

주요 자본시장 플랫폼 회사의 수익 증가율



자료: 개별 회사 홈페이지

소결) 글로벌 IB의 디지털 혁신 전략



1 글로벌 IB의 디지털 혁신 전략

2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화 진단

3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향

한국 증권업의 수익성 및 효율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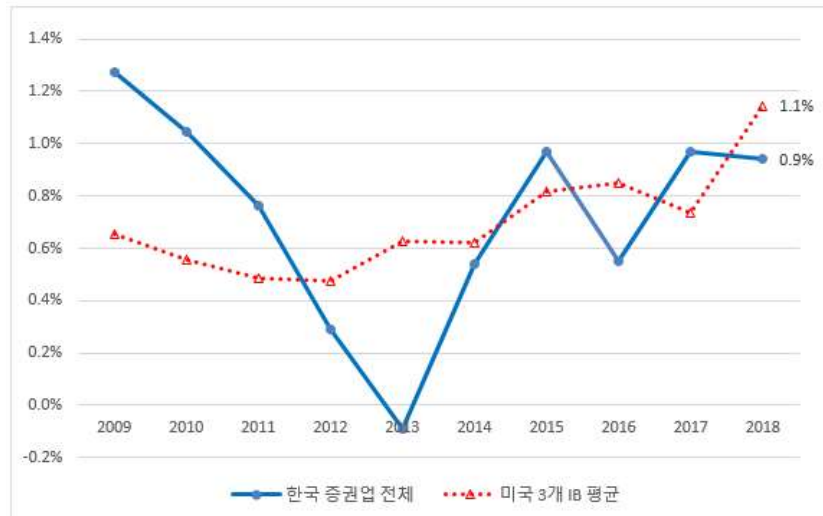
❖ 한국 증권업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수익 변동성은 다소 높음

- 2018년 한국 증권업의 연평균 ROA는 0.9%로, 2013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나 미국 IB와 비교하면 수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동기간 미국 투자은행의 연평균 ROA는 1.1%로 한국보다 높으며,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

❖ 한국 증권업의 효율성(비용수익비율)은 개선되었으나, 미국과 비교하면 변동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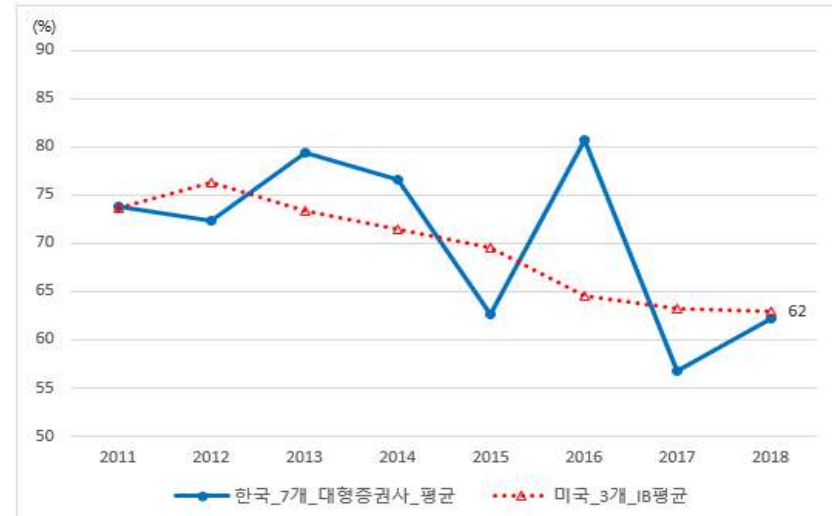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한국 투자은행의 비용수익비율(판관비/(영업수익-판관비제외 영업비용))은 62%로, 2011년 73%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
- 동기간 미국 3개 IB의 평균 비용수익비율은 74%에서 63%로 꾸준히 감소

·한미 증권업의 수익성(ROA)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블룸버그

·한미 증권업(투자은행)의 비용수익비율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블룸버그

국·내외 증권업의 사업부분별 수익 비중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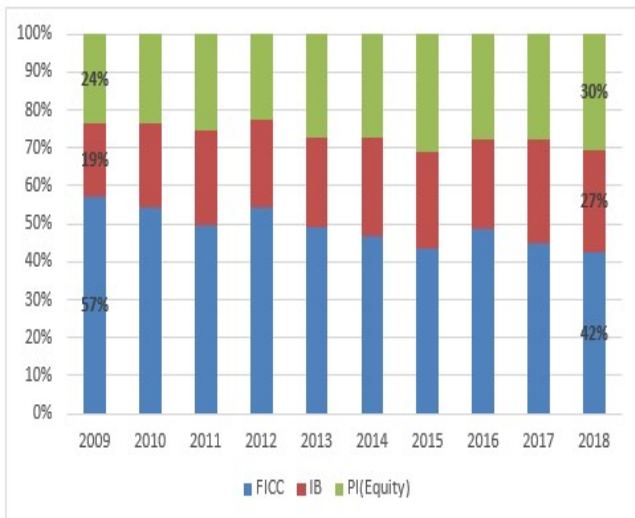
❖ 국내외 모두 투자은행(IB) 부분 수익 기여도는 꾸준히 증가

- 과거 10년간 글로벌 IB의 투자은행(IB) 부분 수익 비중은 19%에서 27%로 증가했으며, 한국 증권업의 투자은행(IB) 부분 역시 7%에서 20%로 꾸준히 증가

❖ 해외 IB와 달리, 한국 증권업의 자기매매 비중은 증가했으며 자산관리 비중은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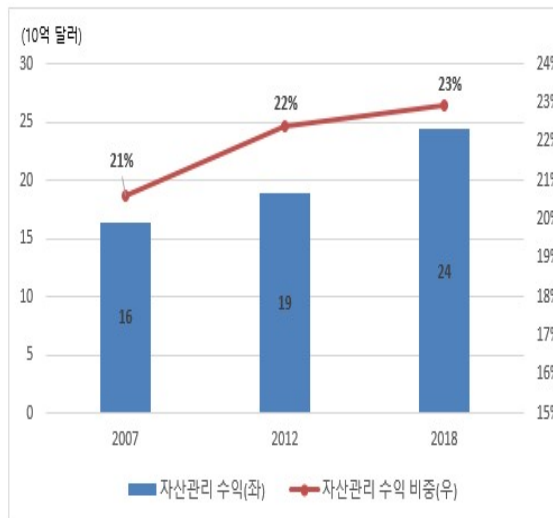
- 글로벌 IB의 FICC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파생결합증권, Repo 시장 성장의 영향으로 자기매매 비중이 증가(단, 자기매매 수익 변동성이 확대)
- 미국계 IB의 자산관리 부분 수익 비중이 증가한 반면, 한국 증권업의 자산관리 부분 수익은 둔화
- 글로벌 IB는 자기자본 투자(PI)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위탁매매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

글로벌 IB의 사업부분별 수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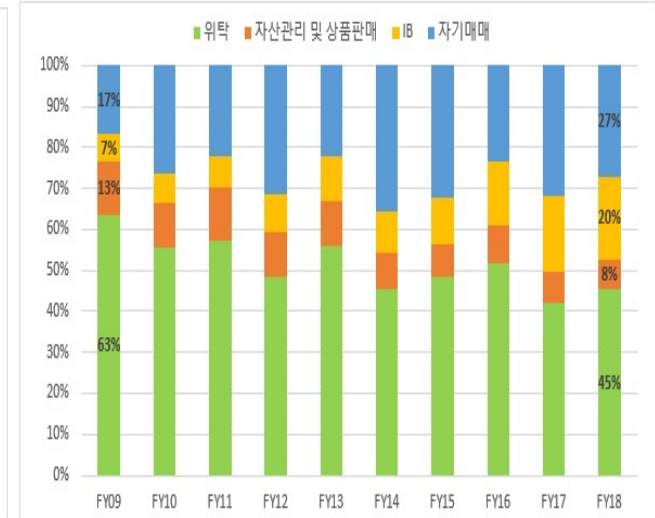
자료: Coalition, S&P 글로벌

미국 3개 IB 자산관리 수익 추이



자료: 각사 홈페이지

한국 증권업 사업부분별 수익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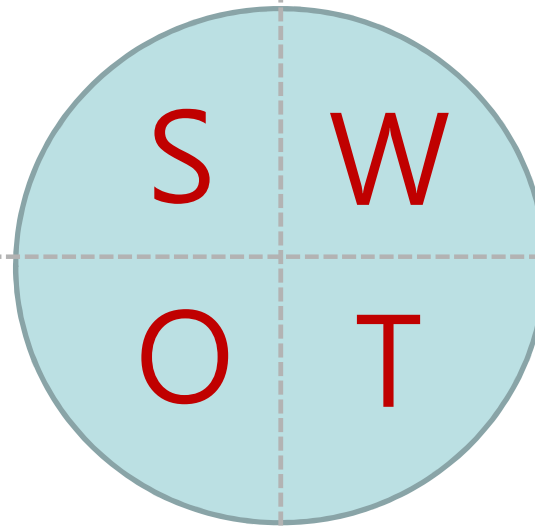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진단 및 디지털 혁신 필요성

❖ 강점(Strengths)

- 사업 다변화 및 수익성 개선
- 우수한 인적 자원
- 유연한 조직구조

❖ 약점(Weakness)

- 판매채널 부족
- ICT 투자 부족
- 차별성 부족



❖ 기회(Opportunities)

- 모험자본, 자산관리 수요 증가
- 신남방 국가의 성장
- 디지털 서비스 경험이 풍부

❖ 위협(Thre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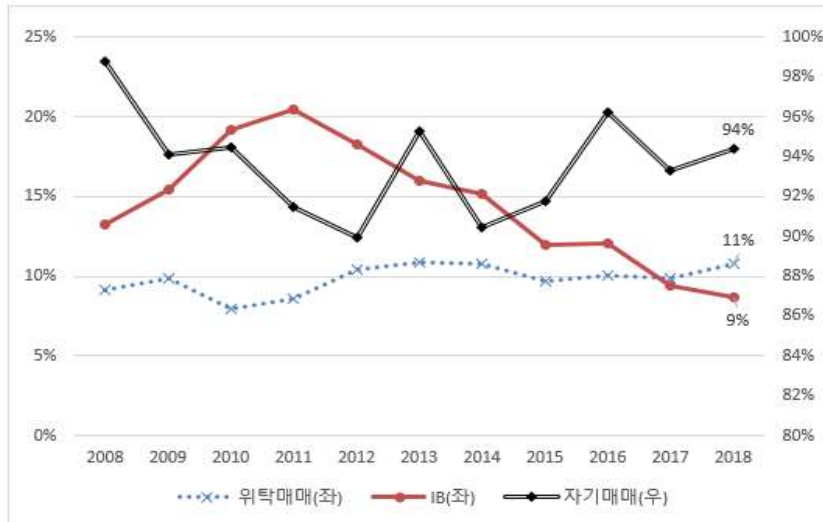
- ICT 기업 증권업 진출
- 금융업 장벽 축소
- 영업행위 규제

사업부분별 효율성 분석 및 디지털 혁신 방향

- ❖ **·한미 모두 IB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기매매 부분 효율성은 다소 악화**
 - 글로벌 IB와 유사하게 한국 IB 부분의 비용수익비율은 꾸준히 감소
 - 국내외 모두 자기매매 부분 효율성은 다소 악화
 - 한국 위탁매매 부분의 효율성 또한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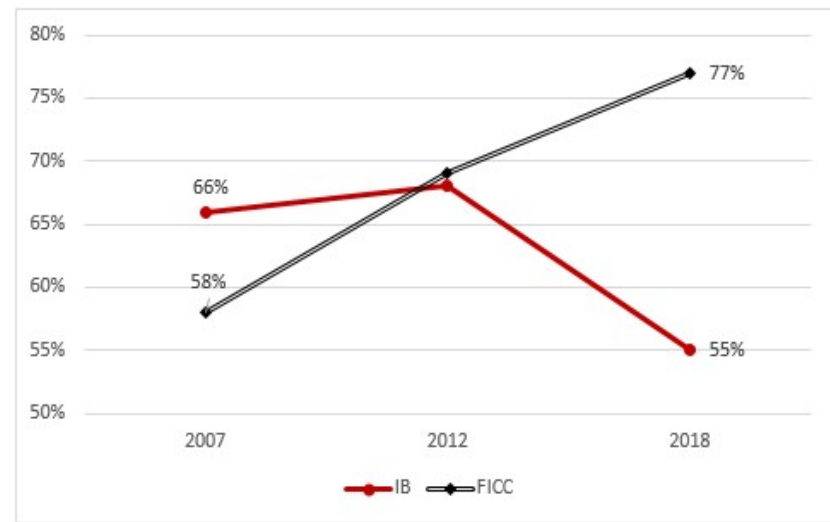
- ❖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등을 중심으로 효율성 개선을 추진할 필요**
 - 거래 플랫폼 선진화, Middle-back 업무의 자동화, 디지털 기반 해외진출,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매매체결, 위탁매매 분야 등을 중심으로 효율성 개선 필요
 - 사업 전 부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 리더십에 기반한 Agile 조직문화가 필수적

한국 IB의 사업부분별 비용수익비율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7개 대형증권사 평균

미국 IB의 사업부분별 비용수익비율 추이



자료: 각사 홈페이지

ICT 투자 현황 및 디지털 혁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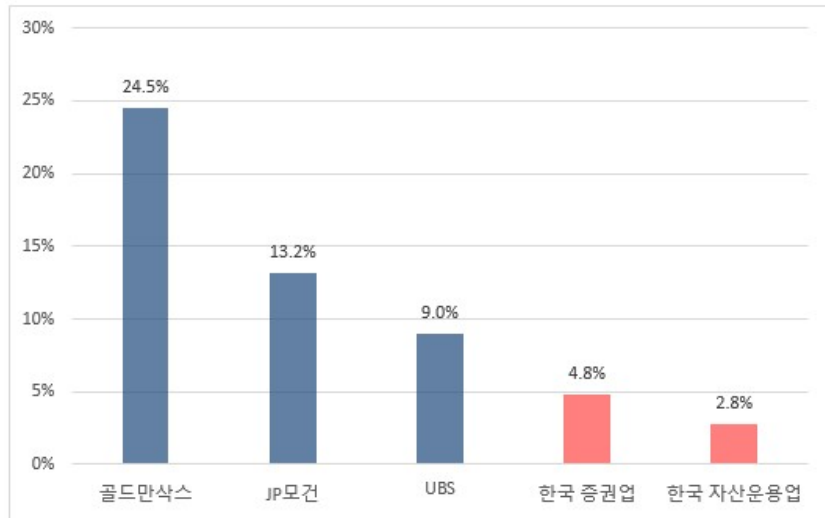
❖ 한국 금융투자업의 ICT 인력 비중은 글로벌 IB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등 글로벌 IB들은 전체 인력의 10~25%를 ICT 전문 인력으로 채용
- 한국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는 전체 인력의 3~5% 내외만을 ICT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며, 이들은 대부분 보안, 전산설비 관리를 담당하는 등 금융투자업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

❖ 글로벌 투자은행과 달리, 한국 금융투자업의 근로자수는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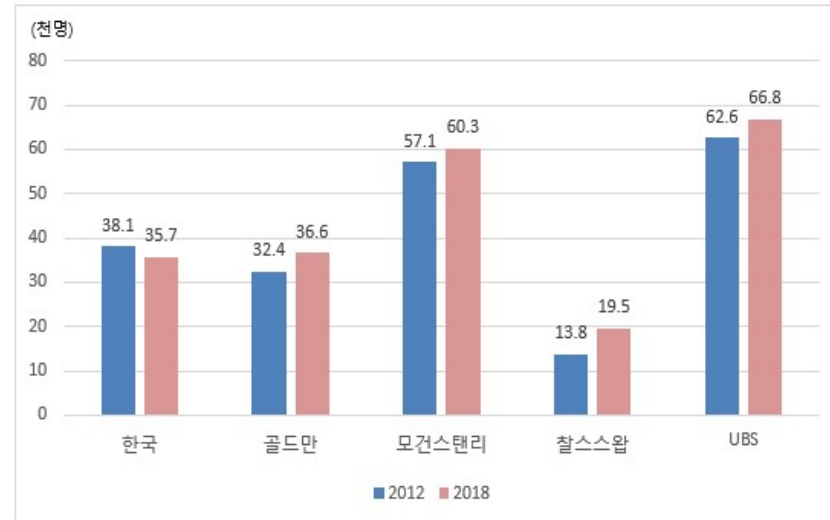
- 글로벌 IB들은 ICT 및 자산관리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음
 - 2012년 대비 근로자수 증감: 찰스스왑(41%), 골드만삭스(13%), UBS(7%), 모건스탠리(6%)
- 한국은 지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ICT 인력 비중



자료: 한국은행, Medici research, 2017년 기준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근로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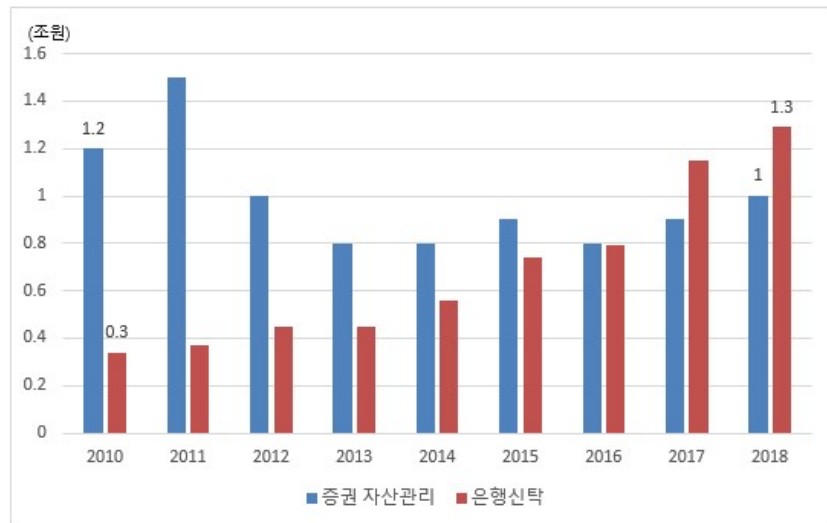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홈페이지

판매채널 진단 및 디지털 혁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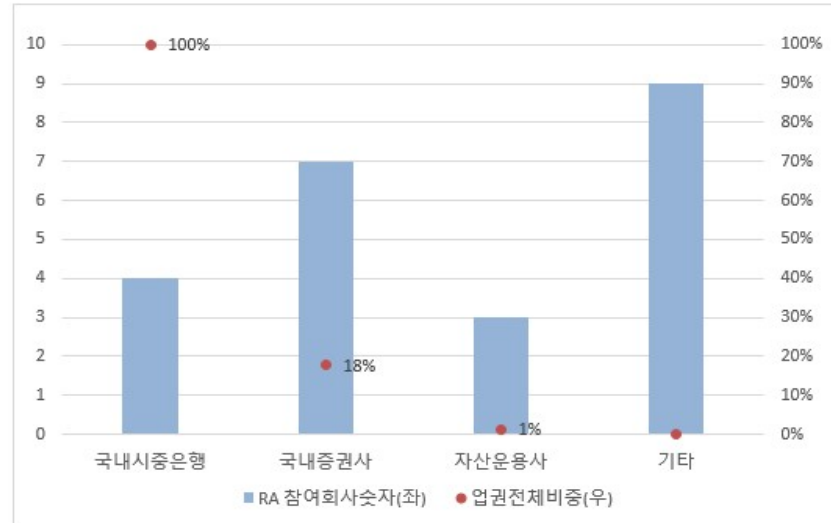
- ❖ **은행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수익 비중은 정체**
 - 지점 감소, 펀드 보수 인하로 증권회사의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판매 수익 규모는 정체
 - 증권 자산관리 수익: 1.2조원('10) → 1.0조원('18), 은행신탁 수익: 0.3조원('10) → 1.3조원('18)
- ❖ **로보어드바이저(RA) 등 비대면 기반의 직판 솔루션을 확대할 필요**
 - 은행, 자산운용사,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비대면 자산관리 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증권회사는 비대면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증권, 자산운용사의 RA 테스트베드 참여 비중은 각각 18%, 1%로 현저히 낮음

증권, 은행의 자산관리 부분 수익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업권별 RA 테스트베드 참여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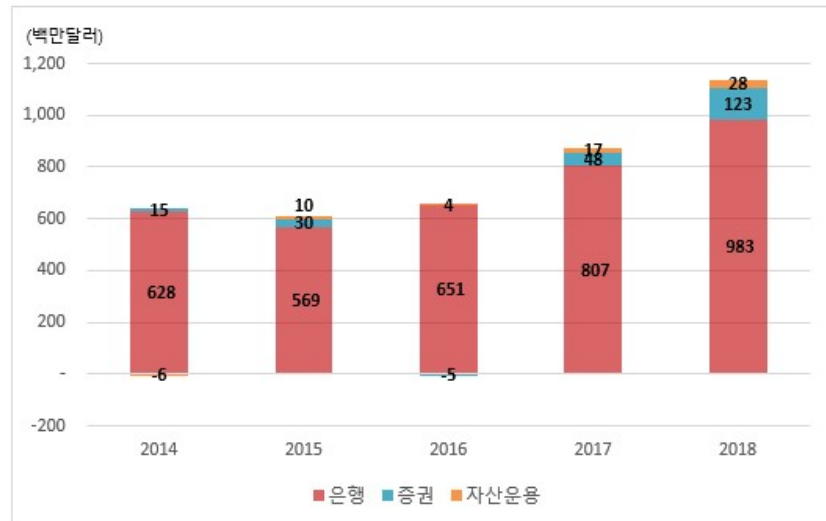
자료: 코스콤

해외진출 진단 및 디지털 혁신 방향

- ❖ 수익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은행 대비 디지털 전략은 부족
 - 2018년 증권회사, 자산운용사의 해외점포 수익은 각각 1.2억 달러(ROA: 3.9%), 0.3억 달러(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9.8억 달러, 11.5%)과 비교하면 해외점포 수익성은 여전히 낮음
 - 동기간, 한국 은행은 아시아 신흥국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익성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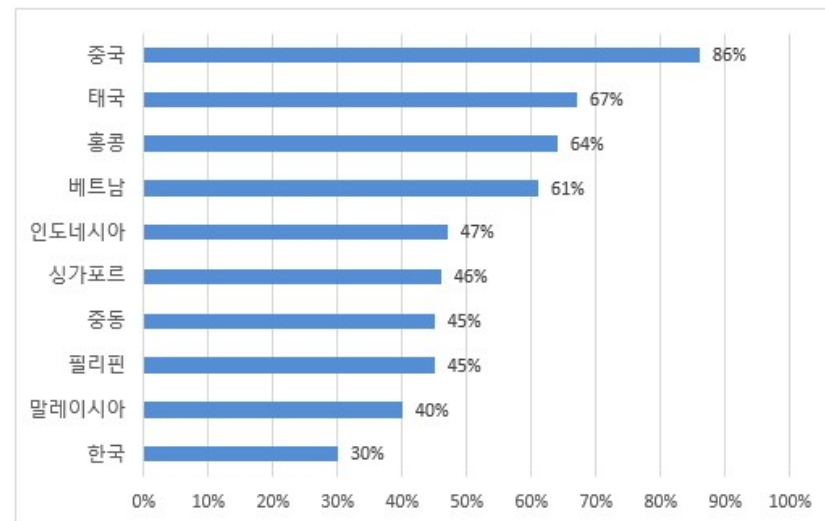
- ❖ 비대면 자산관리, 모바일 증권서비스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 디지털 전략을 확대할 필요
 -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은 20~30대의 젊은 고객이 많고, 모바일 서비스를 체험한 고객 비중 또한 높기 때문에 비대면 기반 자본시장 서비스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
 - RA를 활용한 비대면 자산관리, MTS 등 모바일 증권중개 서비스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

증권, 자산운용, 은행의 해외점포 수익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아시아 주요국 모바일 지급결제 사용 경험 비중



자료: Statista, 한국은행, 2018년 기준

디지털 기반 신사업 진단 및 디지털 혁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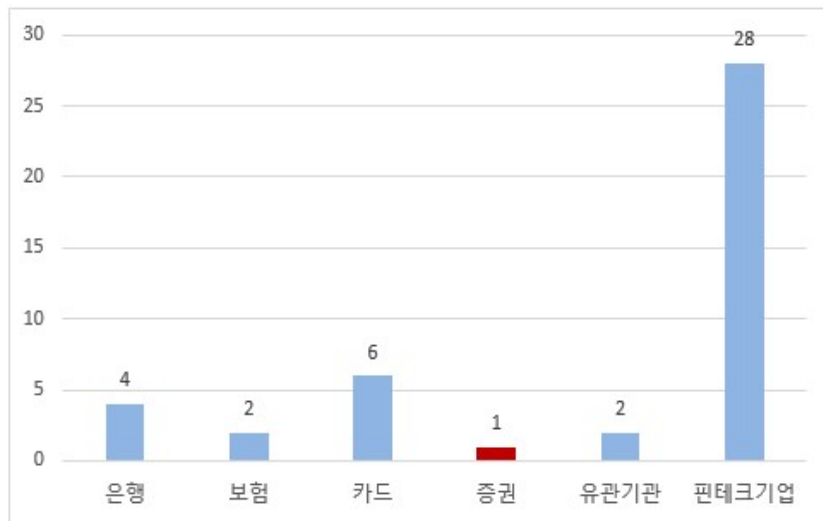
❖ 금융투자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낮음

- 정부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및 배타적사용권 부여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도입
- 2019년 9월 현재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증권회사가 신청한 건수는 단 1건(소액투자서비스)으로 은행, 보험, 카드 등 타 금융업권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 자본시장 부분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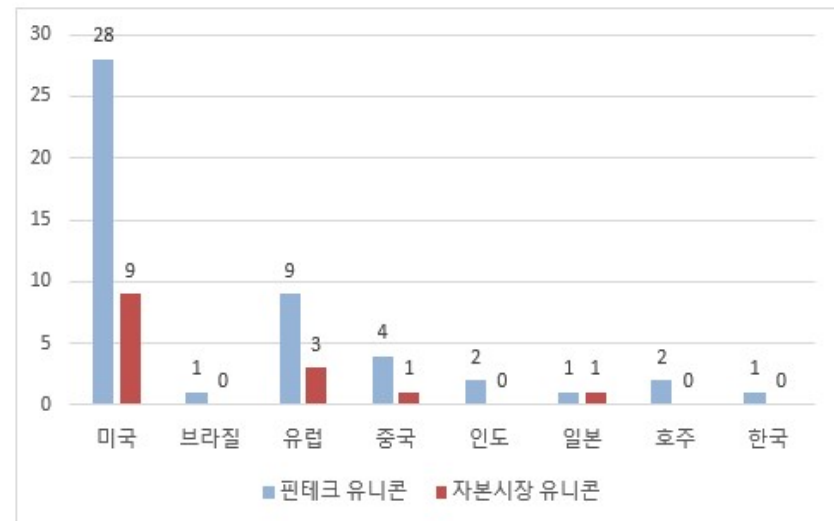
- 미국(28개), 유럽(9개)을 중심으로 핀테크 유니콘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매매체결, 데이터 분석 등 자본시장 핀테크 유니콘도 꾸준히 등장
- 아시아에서는 중국(4개), 인도(2개), 호주(2개), 일본(1개), 한국(1) 등에서 핀테크 유니콘이 등장

업권별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건수



자료: 금융위원회, 공동 참여는 중복 계산

국가별 핀테크 유니콘 규모



자료: CB Insights, 2019년 6월말 기준

<참고>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현황 (총 48개 중 자본시장 분야는 14개)

아메리카

- Stripe(미)
- Coinbase(미)
- Carta(미)
- Affirm(미)
- Sofi(미)
- Oscar(미)
- Brex(미)
- Lemonade(미)
- Circle(미)
- Plaid(미)
- Dataminr(미)
- Bill.com(미)
- Gusto(미)
- ROOT(미)
- Marqueta(미)
- Robinhood(미)
- Credit Karma(미)
- AvidXchange(미)
- Kabbage(미)
- Clover(미)
- Chime(미)
- Hippo(미)
- Symphony(미)
- TradeShift(미)
- Avant(미)
- DevotedHealth(미)
- Zenefits(미)
- Toast(미)
- Nubank(브)

유럽

- Transferwise(영)
- Checkout.com(영)
- Revolut(영)
- iValua(영)
- Monzo(영)
- oakNorth(영)
- Greensill(영)
- N26(독)
- Klarna(스웨)

아시아

- LU.com(중)
- TDW.cn(중)
- CGTZ.com(중)
- Tongdun.cn(중)
- Liquid(일)
- Toss(한)
- PolicyBazaar(인)
- Paytm(인)

호주

- Airwallex(호)
- Judobank(호)

자본시장 관련 유니콘(2019.2Q)

자산관리	Robinhood
매매체결	Symphony, Circle, Coinbase, Liquid
기업·데이터 분석	Tradeshift, Carta, Plaid, Dataminr, iValua, oakNorth, Greensill, Tongdun
기타	Zenefits

소결)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화 진단



1 글로벌 IB의 디지털 혁신 전략

2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화 진단

3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향

한국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 혁신 전략



강점 (Strengths)

- 수익을 통한 자본축적
- 우수한 인적 자원 보유
- 유연한 조직구조

약점 (Weaknesses)

- ICT 투자 부족
- 판매채널 부족
- 차별성 부족

기회(Opportunities)

- 자산관리 수요 증가
- 신남방 국가의 성장
- 디지털 서비스 경험 풍부

SO 전략

- √ Agile 기반 조직문화
- √ ICT 투자를 통한 비용 절감

WO 전략

- √ 비대면 자산관리 플랫폼
- √ 디지털 기반 해외진출

위협(Threats)

- ICT 기업 증권업 진출
- 금융업 장벽 축소
- 영업행위 규제

ST 전략

- √ 핀테크 PI 투자 확대
- √ 오픈랩을 통한 전략적 제휴

WT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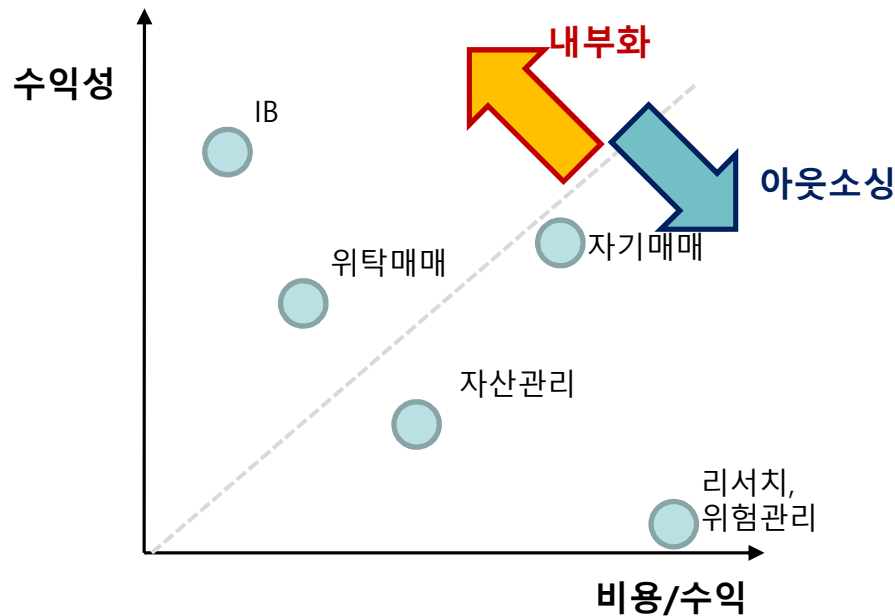
- √ 핀테크 기술 아웃소싱
- √ 렉텍(RegTech) 투자 확대

핀테크 기술의 내부화 및 아웃소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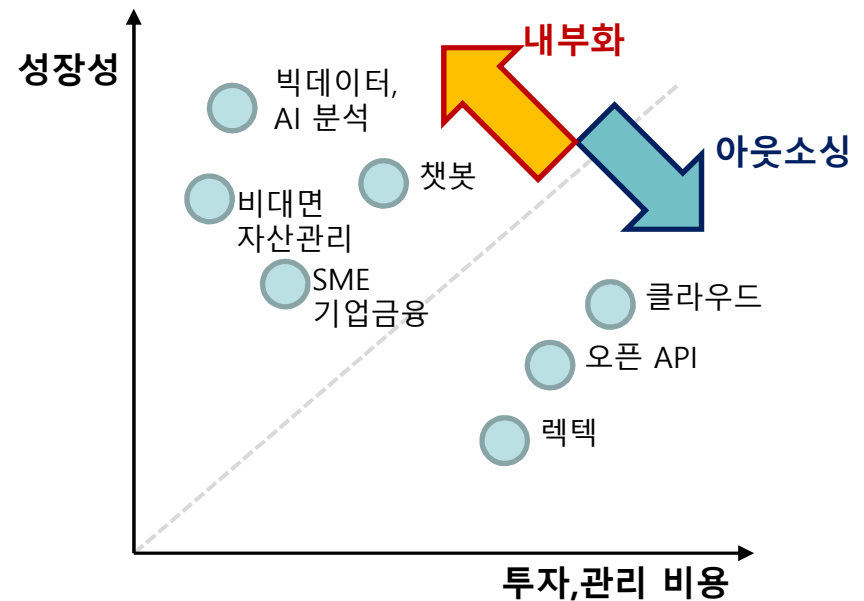
❖ 핀테크 기술 M&A 및 아웃소싱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 확보

- 핵심업무에 가까울수록 내부화를 추진하며 정형화된 부수업무 등은 아웃소싱을 추진
 - 예) 콜센터, 시설관리, IT 정보보안, 회계 등
- 이미 상용화 중인 IT 인프라나 대규모 IT 전문인력이 필요한 서비스는 아웃소싱을 추진
 - 예)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 API, 렉텍 등
- 성장성이 유망하고 전사적 융합 시너지가 큰 분야는 M&A, 지분투자를 통한 내부화 전략이 바람직
 - 예) 빅데이터 및 AI 분석, 비대면 자산관리 플랫폼, SME 기업금융, 챗봇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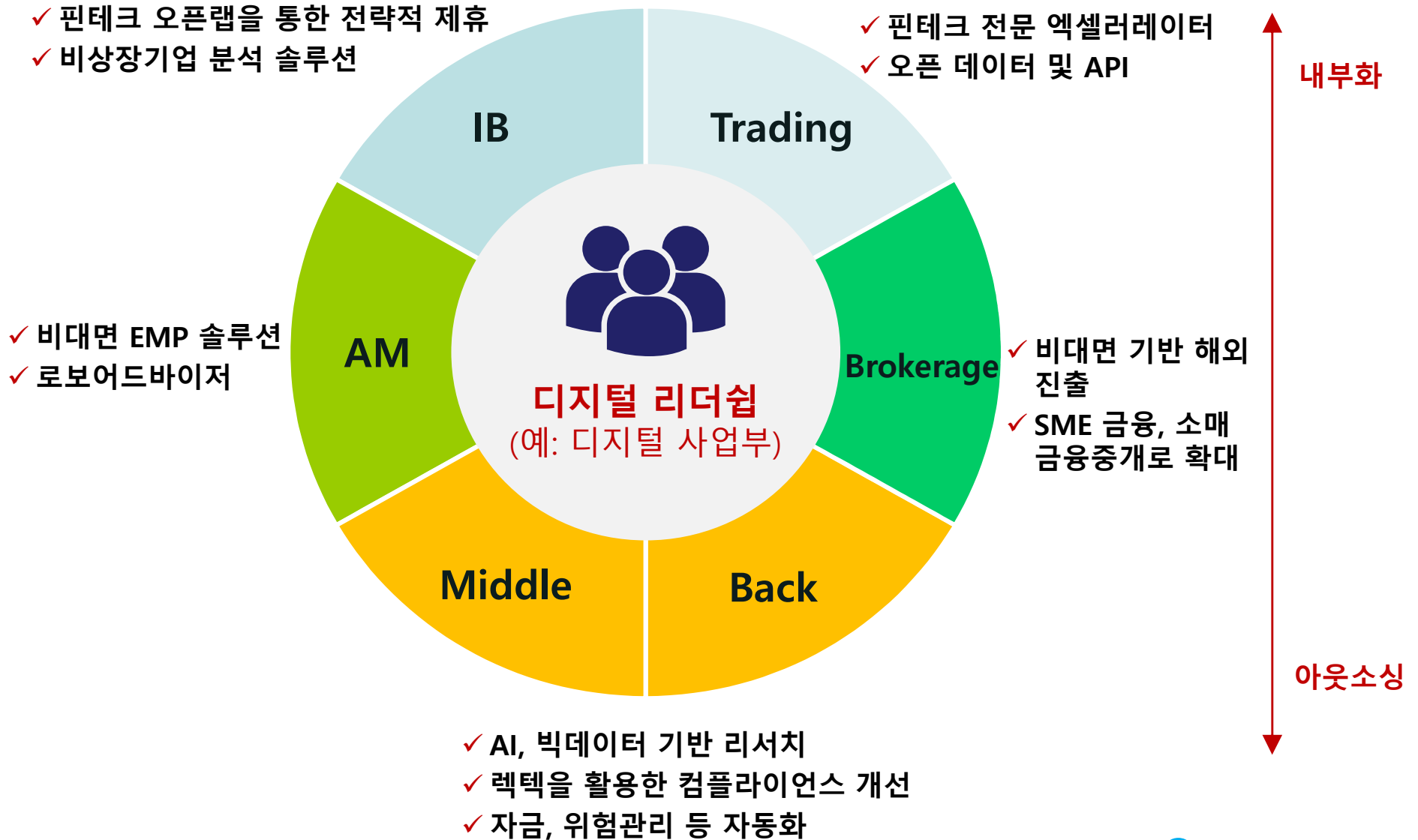
증권업 유형별 내부화 및 아웃소싱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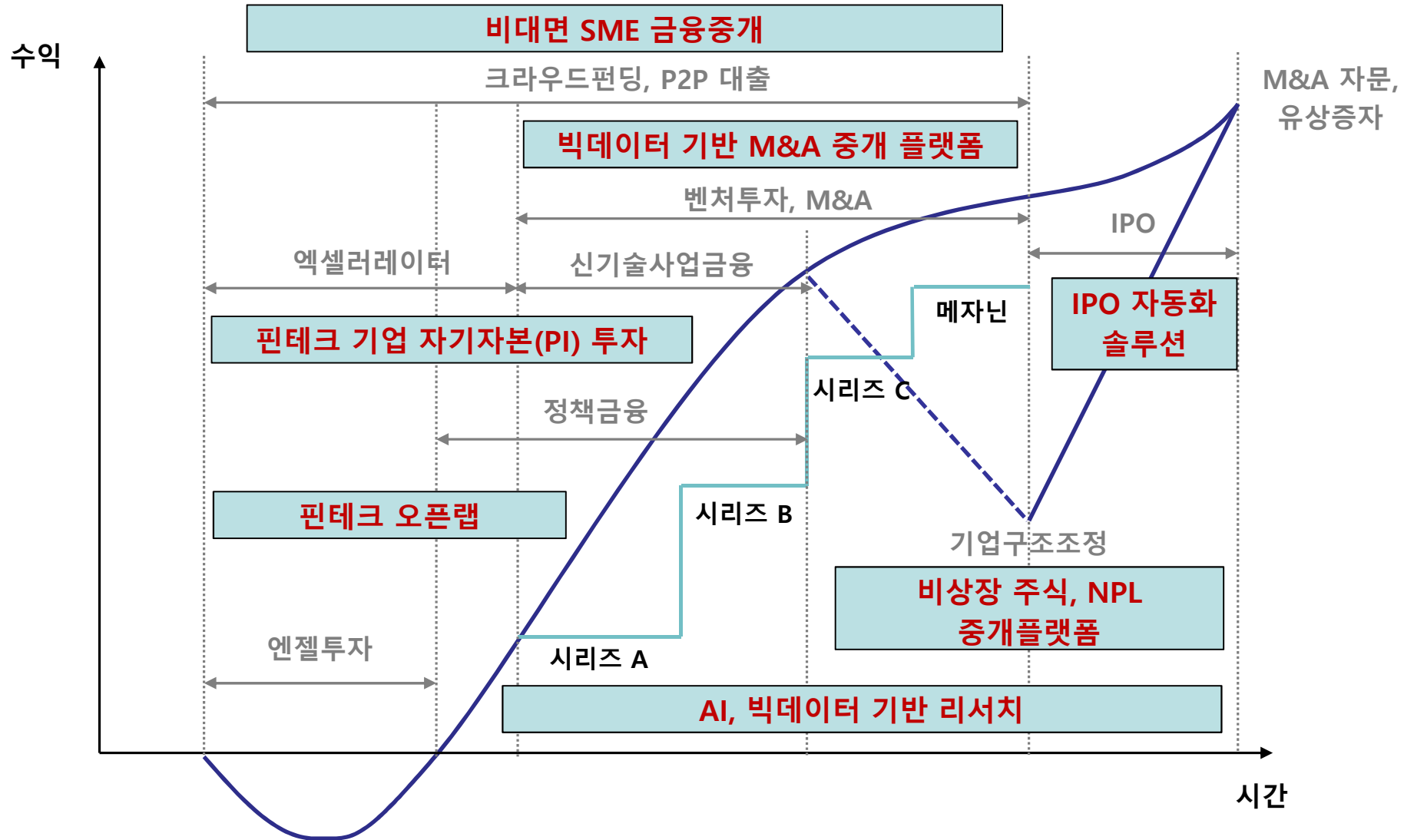
핀테크 유형별 내부화 및 아웃소싱 효과



한국 금융투자업의 사업부분별 디지털 전략



생애주기 맞춤형 핀테크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략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환경 개선

√ 금융투자회사에게 엑셀러레이터 겸영을 허용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요건 완화

√ NCR 관련 불합리한 위험액 산정 방식 개선

예1) 신기술조합 GP 참여시 LP 출자지분에 대한 위험액 산정 배제

예2) 주식집중위험액 가산 기준 완화

예3) 사모사채 위험액 개선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디지털 혁신

창조적 파괴자

- ✓ 핀테크 신사업 진출
(예: 직판 솔루션, 소매금융)
- ✓ 핀테크 M&A를 통한 효율화
- ✓ ICT 인력투자 확대

혁신성장 동반자

- ✓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확대
- ✓ 스타트업과 동반 해외진출
- ✓ 핀테크 기술 아웃소싱, M&A
자문 등 전략적 제휴

생태계 조성자

- ✓ 생애주기 맞춤형 핀테크
기업 지원
- ✓ 오픈 데이터 플랫폼
- ✓ 규제 인프라 개선

감사합니다

<부록1> 국가별, 분야별 핀테크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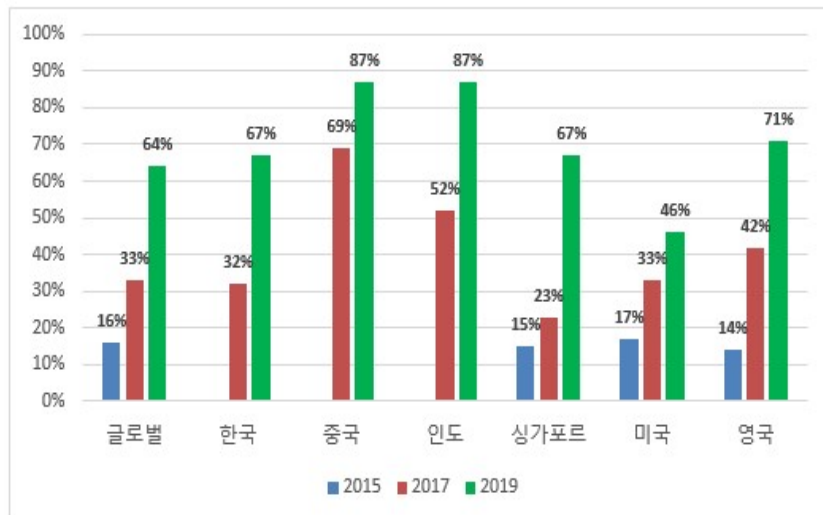
❖ 핀테크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EY 핀테크 도입 지수('17 → '19): 글로벌(33% → 64%), 중국(69% → 87%), 인도(52% → 87%)
- 한국 핀테크 도입 지수(32% → 67%)는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다소 낮음

❖ 자본시장 분야의 핀테크 도입 수준은 은행, 보험에 비해 낮으나 성장성이 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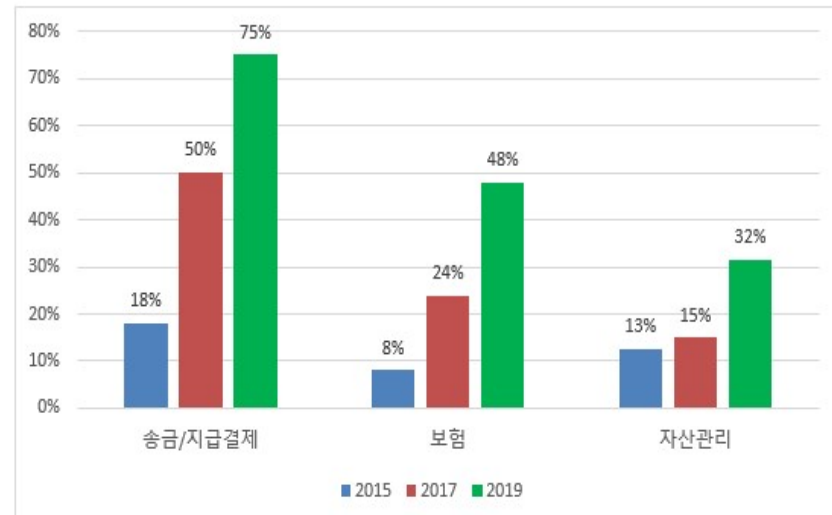
- 송금 및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
- 자산관리 등 자본시장 분야의 핀테크 도입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장성이 유망
 - EY 핀테크 도입 지수('17 → '19): 자산관리(15% → 32%)

주요국 핀테크 도입 현황



자료: EY

분야별 핀테크 도입 현황



자료: EY

<부록2>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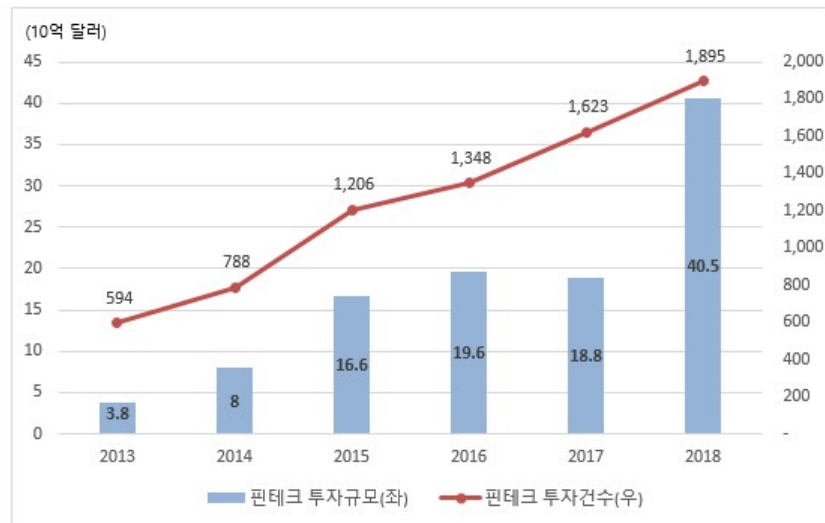
❖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

- 2018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금액은 405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1% 성장률을 기록
- 동기간 핀테크 투자건수는 1,895건으로 2013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핀테크 투자규모가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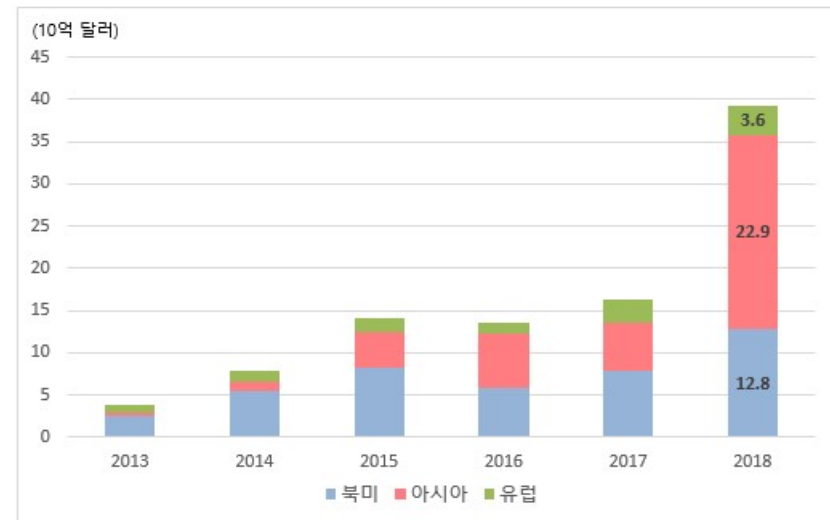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투자금액은 229억 달러로 2017년 대비 약 4배 증가
 - 중국 Ant Financial의 140억 달러 유치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54% 증가
- 동기간, 미국과 유럽의 핀테크 투자금액은 128억 달러, 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36% 증가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 추이



자료: CB Insights

지역별 핀테크 투자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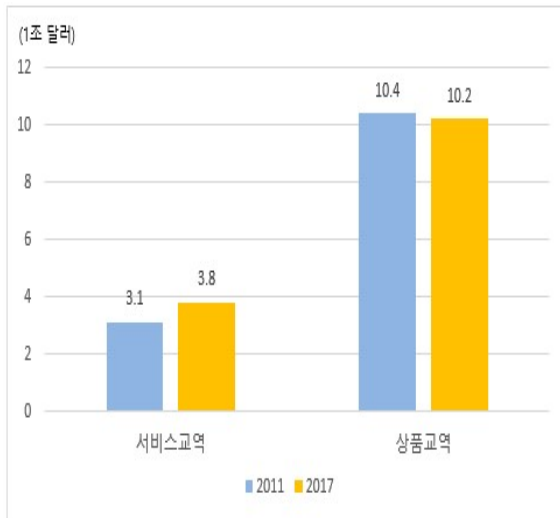
자료: CB Insights

<부록3> 핀테크 투자증가의 배경

- ❖ **전통적인 상품 교역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 및 데이터 교역은 빠르게 증가**
 - 전통적인 상품 교역은 성장이 둔화된 반면, 서비스 교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
 - 서비스교역(OECD): 3.1조 달러('11) → 3.8조 달러('17)
 - 최근 10년간 글로벌 데이터 교역 규모는 연평균 42%의 고속 성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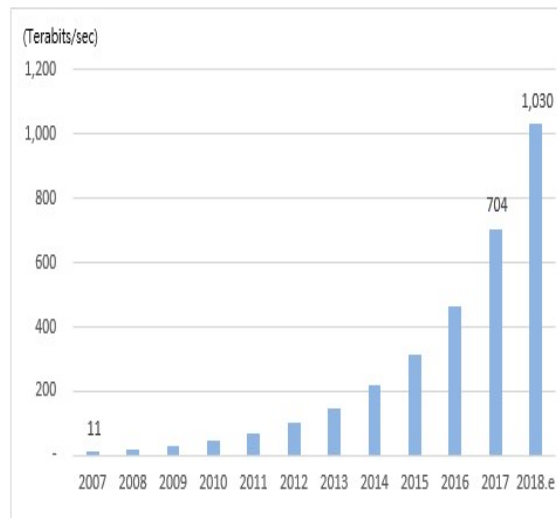
- ❖ **글로벌 금융회사는 고객편의 제공, 업무능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 핀테크 투자를 늘림**
 - 글로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목적 (KPMG 설문)
 - 고객편의 제공(75%), 업무능력 향상(48%), 비용절감(27%), 신사업진출(24%)
 - 디지털 플랫폼을 경험한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수요 기반이 성장한 것도 주된 배경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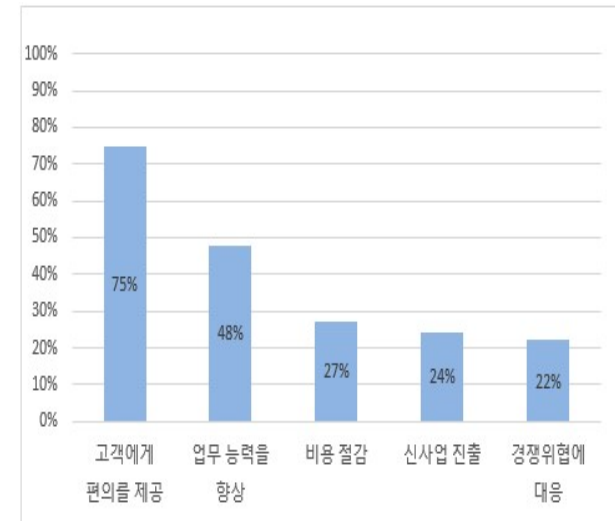
자료: OECD

글로벌 데이터 교역 규모 추이



자료: Mckinsey, Telegeography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목적



자료: KPMG

<부록4> 자본시장 분야 핀테크 투자 현황 - 트레이딩, 자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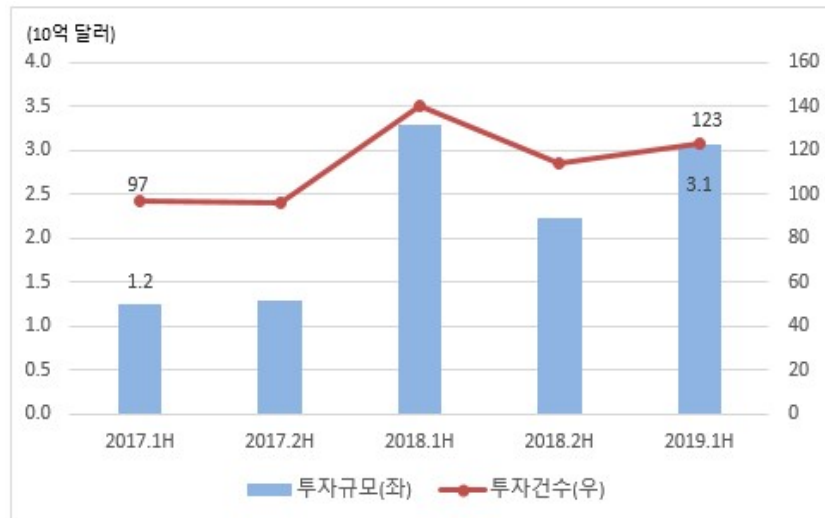
❖ 시세정보, 트레이딩, 기업 데이터 분석 등 트레이딩 분야 핀테크 투자는 꾸준히 증가

- 글로벌 IB들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분야 핀테크에 대규모 투자
 - 예: Symphony - 클라우드 기반 시세정보 제공 및 매매체결 솔루션
- 비상장기업 투자 수요 증가로 글로벌 IB들은 AI,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예: Carta - 비상장기업 정보제공 및 지분중개 플랫폼

❖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분야 핀테크 투자가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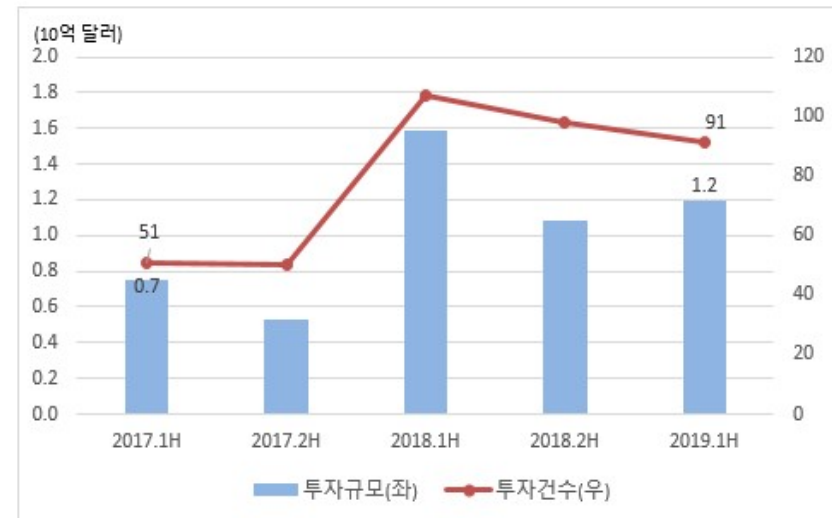
- 로보어드바이저 등 비대면 채널에서 저비용 자산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PEF, VC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핀테크 회사(예: Robinhood, Sofi 등)에 대규모 투자를 수행
- 글로벌 IB들은 자체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글로벌 트레이딩 분야 핀테크 투자 추이



자료: CB Insights

글로벌 자산관리 분야 핀테크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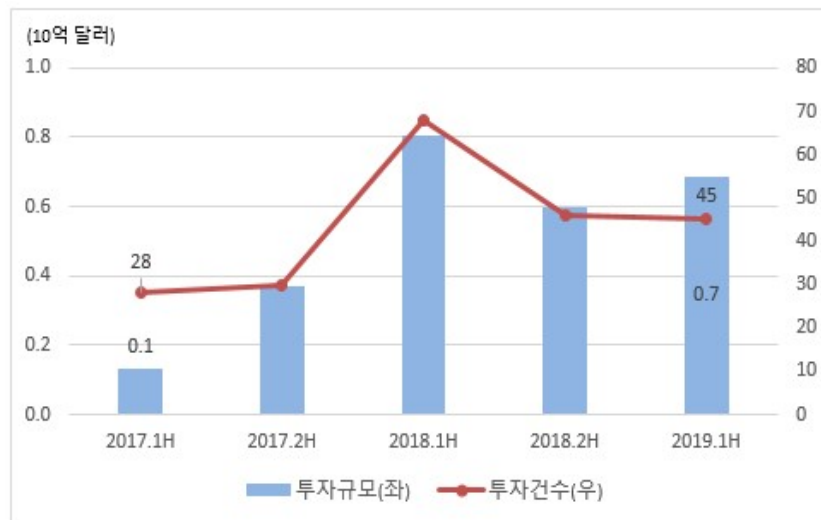
자료: CB Insights

<부록5> 자본시장 분야 핀테크 투자 현황 - 렉텍, SME 기업금융

- ❖ **바젤3, MiFID2, 오픈뱅킹 등의 규제 변화 대응을 위해 렉텍에 대한 투자가 증가**
 -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증거금 및 위험관리 규제 대응을 위해 렉텍 투자를 늘림
 - 유럽에서는 오픈뱅킹 도입으로 API를 공개하고 API를 사용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픈 API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렉텍(RegTech) 회사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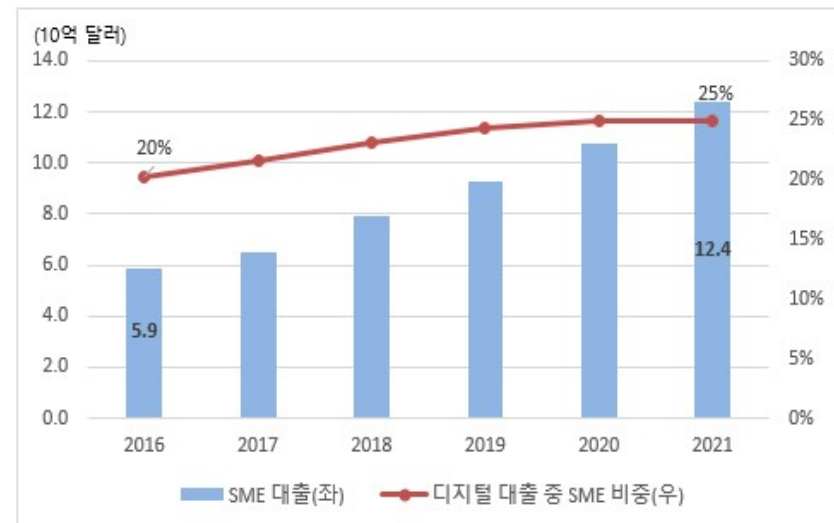
- ❖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지분투자를 돕는 SME 기업금융 관련 투자가 증가**
 - 정보비대칭이 해소되고, 투자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비대면채널 기반 SME 기업금융 수요가 증가
 - 스타트업·비상장기업에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기업분석, 지분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솔루션 증가
 - 예) Carta(미), Greensill(영), iValua(영) 등

글로벌 렉텍(RegTech) 부문 핀테크 투자 추이



자료: CB Insights

미국 SME 비대면 대출 규모 추이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